

주제론을 중심으로 한 俗謠와 『萬葉集』 비교 試論*

서철원**

<차 례>

1. 문제 제기
2. 俗謠와 『萬葉集』의 계통적 동원성
3. 주제론적 비교의 가능성
4. 앞으로의 과제

서

<국문초록>

『만엽집』은 고대 한국과의 친연성이 크다고 인정받아 왔으며, 그 시기가 인접한 향가와와의 비교 연구가 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작가의 혈통, 향가와 동질적인 요소들만의 제한적 비교, 한일 양국의 민족적 차이점을 단순 비교하는 등의 방법론적 제약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자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향가와 『만엽집』의 비교 연구가 순탄치 않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백제문화권을 공통 기원으로 한 속요와 『만엽집』의 계통적 동원성과 아울러, ①애정 소재, ②극적·극한 상황, ③이전가치 등의 주제론적 비교 가능성을 개진함으로써 속요 연구의 방법론을 확장하고 비교문학의 대상으로서 『만엽집』의 성격을 보다 깊이 이해할 단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작품 분석은 ①개체와 개체 사이의 이별, 그리움, 기다림의 정서, ②개체와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극적·극한 상황의 설정 방향, ③계층을 불문하고 인정받을 만한 이전가치의 요소 등을 간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의에서 개

* 이 연구결과물은 2010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260 古詩歌研究 第27輯

별 작품 차원에서 이루어진 논의 성과들이 보다 유효적절한 이론적 구도를 갖춤으로써 속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백제문화권의 후대적 영향력을 재조명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핵심어 : 속요, 만엽집, 백제문화권, 주제론, 비교문학

1. 문제 제기

본고는 고대 한국과의 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온 일본의 『萬葉集』에서 그 ‘친연성’의 실체를 속요와의 주제론적 비교를 통하여 부연, 확장하는 試論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향가와와의 건주어 읽기를 위주로 이어져 온 『만엽집』 비교 연구의 보완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만엽집』에 남았지만 향가에는 드물었던 애정, 극적·극한상황, 移轉(價値¹⁾) 등의 요소를 비교할 단서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궁극적인 목적은 백제의 유산을 공통분모로 삼아 한·일 양국에서 나름의 정황에 따라 정착시키고 함유해온 성과가 속요와 『만엽집』임을 밝히는 것이다.

종래의 『만엽집』 비교 연구는 향가를 중심으로 삼아 이루어져 왔으며²⁾, 많은 성과를 거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고대 일본문학을

1) 이 용어는 김홍규, 「고려속요의 장르적 다원성」, 『육방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102-103면에서 <사모곡>, <상저가> 등의 민요적 성격이 속요의 궁중가요 편입 이후에 오히려 더 환영받았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속요만이 아니라 상류층에 의한 구비문학의 정착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3.3의 관련 논의 참조.

2) 김사엽, 『향가의 문학적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9)에서 문학적 측면의 본격적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 이래로 신은경, 『풍류-동아시아 미학의 근원』 (보고사, 1999), 이연숙, 『한일고대문학비교연구』 (박이정, 2002)와 이연숙, 『향가와 『만엽집』 작품의 비교 연구』 (제이앤씨, 2009), 최정선, 『향가 기술 양상에 관한 비교연구-만엽화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민족문화연구』 32 (한민족문화학회, 2010), 129-154면 등에서 다양한 측면의 소재적·주제적·배경적·형식적 비교가 이루어진 바 있다. 『만엽집』 전체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와 과제는 최광준, 『한국에서의 『

‘읽어낼’ 능력을 지닌 몇몇 연구자들의 열정과 헌신에 말미암은 바 크다. 그러나 향가의 작품 숫자는 희소하고 『만엽집』 수록작품은 수천여 편을 헤아리기 때문에 비교의 선후 또는 주종관계가 『만엽집』 중심으로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것을 극복한 연구라 하더라도 다음의 3가지 방법론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란 어렵지 않았던가 싶다.

첫째, 『만엽집』 수록 작가의 혈통을 한반도로부터 찾는 것 위주의 방법.

둘째, 향가와 『만엽집』이 공유하고 있는 주제만을 통한 논의.

셋째, 향가와 『만엽집』의 차이를 ‘민족성’의 차이로 파악하는 관점.

우선 작가의 혈통을 한반도로부터 찾는 작업³⁾은 한국문학사의 내포를 확장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어느 해외작가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작품세계에서 ‘한국적’인 요소를 해명하기란 만만치 않다. 만일 그러한 요소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백제계를 중심으로 한 이들 작가군의 성향을 향가를 비롯한 현존 신라문학과의 비교를 통해 접근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⁴⁾ 기실 이러한 방향의 접근은 비교연구 자체가 아닌 ‘외국에 흠어진 한국의 것 되찾기’라는 목적의식이 더욱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⁵⁾

다음으로 향가와 『만엽집』이 공유하고 있는 주제는 轉歌로서의 성격,

만엽집 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 『일본학보』 62 (한국일본학회, 2005), 515-528면을 참조할 수 있다.

3) 이연숙, 『일본고대 한인작가 연구』 (박이정, 2003)에 따르면 『만엽집』 전 20권 306명 4,500여 수의 작품 가운데 최소한 46명의 246수가 한인계 1·2세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4) 『고려사악지』 삼국속악조에 전하는 失傳 백제가요의 목록이 현존 신라 향가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떠올리면(2의 예시 참조), 향가와 백제가요의 거리는 그리 가깝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5) 이러한 목적의 집성이 이연숙(2003)과 황명철, 『『만요슈』와 한인계 시가 연구』 (보고사, 2005)이다.

화랑과 승인, 佛敎, 표현방식 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⁶⁾ 그리하여 향가에 비하면 일본의 죽음 인식이나 종교관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⁷⁾ 그런데 논자도 지적했듯이 위의 요소들은 『만엽집』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향가의 중심주제를 『만엽집』의 주변주제와 비교하는 형국이었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면의 차이를 민족성의 차이로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遊’의 개념의 이러한 차이는 민족적인 정서와 근본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인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였고, 이것은 일본인들에게 강한 인생무상감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즐기거나 하는 현실주의적, 향락적 생활을 중시하였으며 그러한 성격이 그 문화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遊’의 개념에도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종교적인 사유관, 긍정적인 인생관이 강하였으므로 ‘遊’에도 그러한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⁸⁾

여기서 ‘한국’이라는 표현을 ‘신라’에 한정시켜 이해한다면 위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향가에서 이룩한 종교적 사유관과 긍정적 인생관이 이후의 시가문학에 얼마나 이어졌는지, 인생무상감으로 인한 향락적 지향의 과연 『만엽집』 또는 고대 일본에만 나타나는 특성인지 돌이켜본다면 再考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위의 주장에 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문학의 대상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평가하기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덧붙여 다른 논자는 『시경』과의 비교를 통해, 도덕성의 결여 탓에 『만엽집』은 “현실의 삶과 단절된 도화원의 세계”를 그리고 있

6) 해당 논의는 이연숙(2002)과 이연숙(2009) 참조.

7) 이연숙, 『한일 고대 만가의 성격』, 『한일고대비교문학연구』 (박이정, 2002), 47-76면.

이연숙, 『향가와 만엽집의 불교』, 『향가와 『만엽집』 작품의 비교 연구』 (제이앤씨, 2009), 110면.

8) 이연숙(2009), 132면.

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 역시 결국 『시경』이라는 외부의 논리를 통해 『만엽집』의 취약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⁹⁾ 요컨대 논자들의 의도와는 별개로 그 차이점이 ‘우열관계’로 비쳐질 여지가 생겼는데, 이에 따라 비교문학의 연구대상으로서 『만엽집』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속요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위에서 제기한 바 3가지 제약을 극복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속요와 『만엽집』은 지방문화의 소산, 더 과감하게 말하자면 백제문화권으로부터 기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통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작가의 혈통에 연연하는 것보다 진전된 근거가 아닐까 한다. 다음으로 속요는 사랑노래·여성화자¹⁰⁾, 피안지향성¹¹⁾ 등 보편적인 정서를 토대로 이루어졌기에 『만엽집』의 중심주제와 겹치는 영역이 향가에 비해 크다. 따라서 죽음·종교 등 한정된 주제에 국한된 연구 방향을 달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선적인 차이보다는 보편적인 동질성에 주목하여, 민족성의 차이가 아닌 문화사적 배경의 공통점을 보다 섬세하게 고찰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따라서 속요와의 비교 연구는 『만엽집』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한편, 자료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속요 연구에도 기여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가설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 보겠다. 우선 속요와 『만엽집』의 계통적 동질성을 백제가요의 자취를 통해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신라 나아가 고려시대까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온 ‘백제문화권’의 위치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속요와 『만엽집』의 주제론적 비교 가능성을 애정, 극적·극한상황, 이전가치라는 3가지 요소를 통해 시도하고자 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비교의 가능성 가운데 몇몇 사례에 불과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의 유효성을 제기한다는

9) 박창기, 「만요슈의 도덕성 문제-시경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어일문학연구』 72 (한국일어일문학회, 2010), 82면.

10)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 연구』 (계명대 출판부, 2002), 90~93면과 133~142면.

11) 김대행, 『한국시의 전통 연구』 (개문사, 1980), 150~151면.

쪽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논지를 요약 제시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덧붙일 것이다.

2. 俗謠와 『萬葉集』의 계통적 동원성

향가와 『만엽집』이 비교 대상이 되었던 근거는 그 창작, 향유의 시기가 인접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렇다면 속요와 『만엽집』에도 그러한 ‘인접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그 인접성을 백제 혹은 ‘백제문화권’¹²⁾의 남은 자취라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만엽집』과 백제의 관계를 검토하고, 속요와 백제문화권의 관련 양상을 생각해 보자.

『만엽집』에서 한국계 작가는 모두 167명인데, 이는 『만엽집』 전체 작가의 32%에 해당하며, 그 가운데 백제계는 145명에 이른다고 한다.¹³⁾ 이들이 곧 백제인, 백제시가인 것은 아니겠지만, 백제의 문화를 일본이 계승, 지속하는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 『만엽집』이라는 다음의 평가를 떠올리면, 『만엽집』과 백제시가의 親緣性은 부정하기 어렵다.

좀 지나치게 쓰는 것 같아서 주저되지만 저 백촌강의 싸움이 없었다면 萬葉集도 없었을지 모르겠다. 천지2년(663), 당에 대해서 최후의 저항을 한 백제는 일본의 도움도 소용없이 크게 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의 고관들은 일본으로 망명, 일본의 조정은 그들을 맞이하여 후퇴한 전선을 일본에 구축한 것이 되었다. 각지의 築城, 수도의 이동, 그리고 군사교련이 행하여졌으나, 다행히 唐의 來襲은 없었다. 그 결과, 백제의 문화를 일본이 계승하는 형식으로 역사가 흘러갔다. 그 속에 탄생한 것이 萬葉集이다.¹⁴⁾

12) 후기의 신라 또는 고려에서의 지역 차별로 인하여 백제 지역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꾸준히 지속하게 되었다. ‘백제문화권’이란 이러한 정황을 감안한 범주이다.

13) 이연숙(2003), 168면.

14) 中西進, 『萬葉の時代と風土』 (角川書店, 1980), 106~107면. 이연숙(2003), 11면 재인용.

이러한 전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앞서 비판했던 혈통론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고는 한국계 작가들의 작품에만 국한시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동질적인 문화권역의 소산을 집대성한 『만엽집』이라는 문헌 내에서 한국계와 비한국계의 작품세계가 크게 다를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백제의 유산을 나름의 정황에 따라 한·일 양국에서 변용, 정착시킨 성과가 속요와 『만엽집』으로 향유, 전승되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따름이다. 따라서 양국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비중을 두고, 함께 논의할 단서를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할 따름이다.

다음으로 속요와 백제문화권의 관계를 돌이켜 보자. 근래의 속요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적 관점에 따른 작품 이해가 힘을 얻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백제지역의 가요들과의 동질성 또는 이질성이 주목받기도 했다.¹⁵⁾ 특히 『樂學軌範』에 그 全文이 실려 전하는 <정읍사>는 과연 백제의 노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적도 있었으며, 신라에 편입된 이후에도 백제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은 꾸준히 이어져 왔기에 후대의 백제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작품으로 보자는 절충적 입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 근거는 『高麗史·樂志』 三國俗樂條 백제시가 <禪雲山>, <無等山>, <方等山>, <井邑>, <智異山> 등에 대한 간략한 해제에 있다. <정읍(정읍사)>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보자.

- ① <禪雲山> : 장사 사람이 부역을 나갔는데, 기한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그리워하여 선운산에 올라가 바라보며 부른 것이다.
 ② <無等山> :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이며, 광주는 전라도의 큰 고을이다.
 (A)이 산에 성을 쌓아서 백성들이 의지하며 편안하게 여겼으니 이를 기뻐하여 노래한 것이다.

15) 서철원, 「백제 문화권의 <정읍사>와 고려속요의 기원」, 『국어문학』 44 (국어문학회, 2008), 265~283면.
 김창원, 「고려시대 ‘평양’이라는 공간의 탄생과 고려가요의 서정-〈서경별곡〉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2009), 175~198면.

- ③ <方等山> : 방등산은 나주의 속현이며 장성의 경계에 있다. (B)신라 말에 도적떼가 크게 일어나서 이 산을 근거지로 삼았다. 양가의 자녀들이 납치되어 끌려온 바가 많았는데 장일현에 사는 여자가 이 노래를 지어 그 남편이 즉시 와서 구해주지 않음을 풍자한 것이다.

- ④ <智異山> : 구례현 사람의 딸이 얼굴이 고왔고 지리산에 살았는데 젊은 가난했으나 부녀자의 도리를 다했다. 백제왕이 그 미모를 듣고는 거두어들이고자 하였으나 여자가 이 노래를 지어 죽기를 맹세하고 따르지 않았다.

인용문의 (A)와 (B)를 보면, 『고려사악지』 소제 백제시에서 ‘백제’라는 명칭은 ‘백제시대’라는 시간적 배경보다는 ‘백제의 문화를 지속하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권역적 의미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인다. 우선 (A)의 산성으로 추정되는 광주 無等古城趾는 대체로 통일신라 하대에 축조되어 고려 초까지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며¹⁶⁾, (B)에서는 창작배경을 통일신라 하대로 파악하고 있다. <지리산>에서 ‘백제왕’이 등장하지만 이처럼 백제왕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설화는 백제 당대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삼국사악지』의 백제시에서 ‘백제’는 ‘시대’보다는 문화적 ‘권역’ 개념에 한결 가깝다. 이 때문에 『악지』 편찬자는 『삼국유사』 편찬자가 향가에 그러했듯이 독립된 作品名을 부여하기보다는, 창작 지역의 명칭을 그대로 작품명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신라, 그것도 하대에 이루어졌을 이 노래들을 어떻게 백제문화권의 遺産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일 수도 있다. 백제 멸망 이후로도 ‘百濟語’는 1세기 이상 더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추정¹⁷⁾은 ‘백제문학’의 경우에도 유효할 수 있지만, 점령국 ‘통일신라’에 복속된 문화권의 독립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제 문화권’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은 ‘통일신라’ 사회의 속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후기 신라는 王城人과 地方民을 京位와 外位로써 철저히 분리하여 통치한 사회였으며,¹⁸⁾ 지방 이

16) 문화재청(<http://www.ocp.go.kr>) 제공 DB 참조.

17) 도수희, 「백제말의 시대별 특징」, 『백제의 언어와 문학』 (주류성, 2004), 56면.

주는 곧 族降과 몰락으로 이어졌다. 하급 귀족으로서 실제 관료였던 6두 품조차 포용하지 못했던 신라의 폐쇄적 사회구조가 ‘후고구려’, ‘후백제’라는 過去史의 再起를 통해 무너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신라의 지배체제 하에서도 고구려·백제 지역은 과거의 문화적 정체성을 연장·지속해 온 것이며, 결국 경주 중심의 신라 정치체제를 몰락시키는 데 一助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이 비록 백제시대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백제문화권’의 특징이 지속되는 가운데 창작·향유됐음은 인정할 만하다.

현존 속요 <정읍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고려사악지』 속악조에 記載된, ‘백제문화권’의 유산이다. 종래의 연구는 이 작품이 조선초 또는 고려말의 창작물이 될 수 없음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 그 결과 <정읍사>의 창작 시기가 다른 고려속요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리라는 개연적 추론은 가능했지만, ‘백제의 문학’으로서 어느 시기에 귀속시켜야 할지 확정하지는 못했다. 그와 같은 확정은 현존 문헌이나 유물로부터는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읍사> 관련 최초 기록이 『고려사악지』에 있음에 착안하여, 같은 기록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말기의 ‘백제문화권’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推斷한다.

게다가 <정읍사>를 통해 추정할 만한 속요의 연원으로서 ‘백제문화권’의 영역은 고려시대에도 존속,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왕건은 후백제 지역민을 차별하여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음이 『고려사·태조세가』에 드러나있어, 후백제 지역 성씨 9개는 모두 고급관료가 되지 못하였다.¹⁹⁾ 이러한 정황 탓에 순수백제계 식탐과 그 응용양식이 고려시대에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오히려 후대로 갈수록 더 넓은 지역에까지 파급된 것이다.²⁰⁾ 후백제 멸망 이후 백제계 식탐의 ‘부흥’은 백제문화권의 정체성이

18) 전덕재 외, 『한국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 (아카넷, 2000); 전덕재, 『한국고대사 회경제사』 (태학사, 2006).

19) 이수건, 「고려전기에 진출한 기타성관 출신의 고급관인」, 『한국중세사학회연구』 (일조각, 1984), 219면.

20) 머루사지유물전시관, 『백제양식식탐』 (머루사지유물전시관, 2005), 220면.

존속되었다는 상징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정읍사>는 백제문화권의 성격을 유지한 작품이며, 다른 속요와 마찬가지로 지방색, 지역색이 큰 성향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만엽집』 역시 지방관의 채록에 의한 가요 형성²¹⁾의 범위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비교의 단서는 적지 않다 하겠다.

말하자면 <정읍사>는 백제문화권과 속요 사이를 잇는 단서이다. 속요 연구에서는 그 형성과정보다는 후대의 전승 과정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어 왔으며, 근래에는 그 형성에 관여한 외래적 요소에 대한 관심²²⁾과 함께 지방문화에 대한 중앙의 ‘심상지리’라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시각²³⁾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서는 그 논의들의 타당성을 존중하는 한편 지방문화 특히 백제와의 관련을 『만엽집』과의 동질적 요소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상으로써 백제 또는 백제문화권의 유산으로서 속요와 『만엽집』의 계통적 동원성을 검토하였다. 여기서의 동원성이란 백제문화의 계승이라 할 여지도 있으며, 지방문화의 중앙으로의 편입이라는 향유상황의 유사성 측면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더라도 속요와 『만엽집』의 형성과정에는 상통하는 요소가 있음을 인정할 만하다. 이를 단서 삼아 주제론적 비교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자.

3. 주제론적 비교의 가능성

앞서 속요와 『만엽집』이 백제문화를 바탕으로 한 계통적 동원성을 지닐 가능성을 개진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각기 해당 시기의 독특한 文化像

21) 임경화, 「『만엽집』 ‘진설가’의 형성과 율령관료지식층」, 『민족문화사연구』 30 (민족문화사학회, 2006), 82~91면에 따르면 특히 권 16에 그러한 성격의 가요들이 많이 보인다고 한다.

22) 김명준, 「〈상화집〉 형성에 관여한 외래적 요소」, 『한국고전사회의 모색』 (보고사, 2009), 93~118면.

23) 김창원(2009). 같은 곳.

을 반영한 산물이기도 하지만, 시대와 지역을 불문한 보편적 소재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특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시조와 『만엽집』의 비교 역시 가능했던 것이다.²⁴⁾

여기서는 텍스트 내의 자질을 통한 비교 분석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간의 속요 연구에서 중요한 자질로 자주 거론되었던 요소 3가지를 떠올려본다.

첫째, 이별, 그리움, 기다림, 미련 등의 애정 주제

: <정읍사>, <가사리>, <서경별곡>, <정과정>, <이상곡>, <만전춘별사>, <동동>.

둘째, 상대방과의 극적 상황 또는 내면의 극한적 상황을 설정함

: <처용가>, <쌍화집>, <서경별곡> / <만전춘별사>, <정석가>, <정산별곡>.

셋째, 민요로서의 특성이 그 이전까지 덕분에 유지된 작품들

: <사모곡>, <상저가>, <유구곡>

이 3가지 요소를 『만엽집』 수록 작품에서 찾아 비교하고자 한다. 다만 이 가운데 둘째 항목은 ‘주제론’이라기보다 수사방식에 한결 가까워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사방식을 통해 작품의 주제가 확장되고 서정성의 의연이 풍부해지는 측면도 있으므로 일단 넓은 의미에서의 주제론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이들 항목을 좀더 추상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체와 개체의 관계

둘째, 개체와 그 주변의 관계

셋째, 관계망에 대한 재해석

첫째 항목은 개체가 개체에 대하여 갖는 정서의 문제이다. 이별, 그리

24) 임성철, 『만요슈와 고시조의 花鳥風月』(제이앤씨, 2005)와 임성철, 『시조와 만요슈의 자연관-자연소재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29 (일본문화연구학회, 2009), 291-319면. 논자의 연구는 시조의 식물소재-식물적 형태성과 만요슈의 동물소재-동물적 역동성을 비교하기에 주력하고 있다.

움, 기다림, 미련 등 다양한 정서가 표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속요에는 특히 여러 가지 정서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振動하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항목은 주변의 인물과 대화, 행동하는 극적 상황을 조성하거나, 또는 자신의 내면에 비추어 주변의 풍경을 극한적인 방향으로 이해하는 경우라 하겠다. 이는 속요의 수사방식으로 일찍이 주목받아 왔으며, 속요를 歌劇으로 이해하거나 연행 양식과의 관련을 강조하는 관점을 낳기도 했다. 『만엽집』에도 애정의 주제가 복합적으로 기술되거나 극적·극한상황을 연출하는 시도가 더러 보인다. 셋째 항목은 애초의 관계망이 윤리적, 사회적 효용가치로 말미암아 재해석되었다는 의미이다. 특히 『만엽집』의 <防人歌>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작품군은 병사들이 가정을 그리워하는 주제인데, 가족에 대한 정감을 사회적 책임감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계층을 불문하고 큰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이전가지’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러한 구도의 전체 위에 널리 알려진 고려속요와 주제론적으로 상통하는 『만엽집』 작품들을 비교해 본다.²⁵⁾

3.1 애정 주제 -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

속요의 여성화자는 이별, 그리움, 기다림, 미련 등의 애정 주제와 관련하여 다각도로 논의가 진척되어 왔으며, 근래에는 속요의 담당층으로서 ‘기녀’의 성격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²⁶⁾ 그런데 다음의 『만엽집』에서 ‘遊女’의 역할은 속요의 기녀를 특히 <서경별곡>의 상황을 연상

25) 『만엽집』 한국어 원역은 아직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사영, 『김사영전집』 8-12 (박이정, 2004)에 영인된 출간물과 육필 원고 또는 다음의 부분적 성과를 포함하여 기존 연구논저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참조하되, 가급적 근래의 것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번역문의 출전은 해당 작품에 간략히 표기하기로 한다. 구정호, 『만요슈-고대 일본을 읽는 백과사전』 (살림, 2005); 박상현, 『만엽집과 정지성』 (제이앤씨, 2004); 우에노 마코토, 박상현 역, 『천년의 연가 만엽집』 (제이앤씨, 2006).
26) 이영태, 『고려속요와 기녀』 (경인문화사, 2004).

시킬 만하다.

『만엽집』도 8세기를 맞이할 무렵 조정은 점차 한가함을 즐기는 풍조가 되어 갔다. 지통·문무를 출발로 하여 특히 성무에 이르면 풍류는 이미 大宮人の 대명사처럼 되었다. 지방관은 그 풍류를 몸에 익히고 각각 지방으로 내려 가고, 수도에서는 풍요한 행사가 계속되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녀였다. 지방의 유녀는 수도풍을 동경하여 연석에서 노래를 부르고 애욕에 몸을 맡겼다. 드디어 귀경한 관인들은 그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하였다. (중략) 수도로 많은 유녀들이 흘러들어왔다. 그 유녀의 상대는 농민들의 땅 위에 포식하고 있던 귀족의 자제들이었다. 중앙관리나 수도의 귀공자는 유녀를 유녀로밖에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 교섭을 통하여 和歌는 수도와 지방을 교통하고, 귀와 천을 넘나들었다. 그 역할 담당자로 유녀의 문학사적 역할은 중요한 것이었다.²⁷⁾

<서경별곡>의 이별은 평양 기녀와 귀경길의 지방관 사이를 떠올려보면 잘 어울린다. <서경별곡>에서 각 연의 화자가 모두 동일인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가시리>와는 구별되는 강경한 태도는 이 작품의 지방색과 관련하여 주목받아 왔다.²⁸⁾ 『만엽집』의 사랑과 이별은 극적 상황 또는 극한상황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 3.2에서 다루기로 하겠지만, 그 연행 현장에 동질성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설정이 없는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예찬의 어조를 띠기도 한다. 해당 작품을 예로 들어 본다.

4086.
등불의 불빛 속에 보이는 내 꽃갈 이 백합이 호숫도 하구나.²⁹⁾

27) 中西 進, 『萬葉史の研究』(講談社, 1996), 332면, 번역은 이연숙(2009)에 의함.
28) 그리고 앞서 든 인용문에서 유녀들처럼 속요의 화자로서 기녀들이 수도와 지방, 귀와 천을 넘나드는 교섭자·소통자의 역할을 맡았을지는 생각해볼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만엽집』의 이별 관련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속요 화자의 성격을 다시금 생각해볼 만한 계기를 마련해줄 가능성이 있을 듯하여 흥미롭다.
29) 油火の光りに見ゆる吾がかづらさ百合の花の笑まほしきかも. 이하 각주의 일어

272 古詩歌研究 第27輯

(김사엽 역, 2004)

4143.
아가씨들이 떠들며 물 길는 절 우물 그 절 우물물의 열레지꽃³⁰⁾
(김사엽 역, 2004)

작품 4086에서 <동동> 2월령에서 ‘나의 님’을 등불에 비유한 표현을, 4143의 “우물”에서는 <쌍화점>의 생동감 넘치는 배경을 떠올릴 만하다. 4086은 등불이라는 소재를 통한 예찬을, 4143은 여성들의 생기발랄한 생활을 묘사하고 있으며, “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하는 정서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動動>2월령>
二月ハ 보로메 / 아오 노피 현
燈ハ 불 다호라 / 萬人 비취실 즈이(시)샷다
아오 動動다리³¹⁾

<雙花店>3연 부분>
드레우브레 므를 길라 가고신된
우뭇誰이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스미 이 우물빛의 나명들명
다로러거더러 죠고맛간 드레바가 네 마리라 호리라(하략)³²⁾

그런데 <동동> 2월령은 ‘꽃=님’의 대응관계가 명백했던 것에 비해 4086은 불빛에 비치는 자신의 연인 또는 연인을 향한 마음을 ‘꽃’에 투영시켜 관계향을 한결 불투명한 것으로 만든다. 마찬가지로 <쌍화점> 역시 인물의 역할이 ‘용-나-두레박’ 등 단선적으로 대응되어 있는 것에 비해

원문은 김사엽(2004)에 의함.

30) もののふの八十娘らが汲み乱ふ寺井の上の堅香子の花.

31) 『樂學軌範』卷5.

32) 『樂章歌詞』, 歌詞 上

4143은 아가씨들을 꽃에 대응시키는 한편 그것을 화자 자신이 지켜봄으로써 여러 대상을 향한 자신의 동시다발적인 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요컨대 속요에서 개체와 개체의 관계는 다소 일반적·추상적인 성격은 있을지라도 투명한 대응으로 드러나는 것에 비해, 『만엽집』은 매개물을 거쳐거나 간접적인 상징물을 개입시킴으로써 그 애뜻함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지녔다는 가설을 세워봄직하다. 이와 같은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일단 이와 같은 試論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음 사례를 살펴 보기로 한다.

한편 개체와 개체의 관계를 예들러 말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時間觀은 단적인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다.

2800.

날이 샐다고 / 닭이 울고 있네요

뿔대로 되라 / 혼자서 자는 밤은 / 썰테면 새라지 뭐.³³⁾

(이연숙 역, 2009)

이 부분에서 <만전춘별사>의 화자들이 “어름우회 땃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주글만덩 / 情문 오늘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고 했던 시간관을 떠올려 보면, “썰테면 새라지”의 태도는 좀 싱겁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즉흥적인 만큼 현실감을 갖춘 표현이기도 하다. 반면에 즉흥적이지 않은 시간관도 보인다.

1659.

훌륭한 나무 위에 쌓여있는 눈과 같이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도 더해 갑니다.

오늘 밤 집에 행차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³⁴⁾

(박상현 역, 2005)

33) 曉と鶏は鳴くなりよしとやしひとり寝る夜は明けは明けぬとも。

34) 真木の上に降り置ける雪のしくしくも思はゆるかもき夜間へ我が背。

이 작품의 ‘눈’ 역시 <이상곡>의 ‘서리’와는 대조적인 소재이다. ‘서리’가 시련을 뜻한다면 ‘눈’은 시간이 지나며 더해가는 신뢰와 믿음을 상징한다 하겠다. 『만엽집』이 속요에 비해 작품 숫자가 많이 때문에 한결 다채로운 양상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소재의 작품 내적 기능과 시간관 등의 요소에 이와 같은 비교 분석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극적 상황과 극한 상황을 설정하여 개체와 그 주변의 관계를 다룬 사례들을 보겠다.

3.2 극적 상황과 극한 상황 - 개체와 그 주변의 관계

여기서는 극적 상황과 극한 상황이 다루어진 작품들끼리 비교하고자 한다. 극적 상황을 전개한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주제를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극한 상황은 내면의 절박함, 절실함의 표출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극적 상황과 극한 상황은 얼핏 서로 무관할 것도 같지만 화자의 외면적 태도와 내면적 지향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께 거론할 만하다.

3.2.1 극적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요 가운데 <처용가>, <쌍화집> 그리고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 <서경별곡> 등의 작품이 극적 상황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경과정곡>, <가시리> 등은 2인칭 화자를 구체적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은 <처용가>를 제외하면 애정 주제를 띤 작품이기도 한데, 『만엽집』에는 애정의 대상을 직접 부르거나 대화하는 작품이 더러 보인다. 애정의 대상을 향한 직접적인 목소리에 해당하는 1번 작품을 보겠다.

1.

광주리도 예쁜 광주리 가지고 호미도 예쁜 호미 가지고

이 두덩에서 나물 캐는 아기 네 집이 어딘고 묻고져라 일러다오

야마도[大和] 나라는 모두 다 내가 거느리며 빠짐없이 죄다 다스리도다
 나한테만은 일러다오 집이랑 이름이랑³⁵⁾
 (김사엽 역, 2004)

이 작품은 天皇의 御製歌라고 전해진다. 일국의 군주도 소년같은 조금 한 마음으로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일견 절없이 보이는 자기과시욕, 으뜸강을 놓긴 하지만 강자다운 위엄은 없이 애태우는 약자의 모습에 가까운 ‘남성화자’는 속요나 향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현화가>의 구애는 이에 비하면 은근하고도 절절다. 이런 작품을 1번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도 『만엽집』의 지향점은 확인하다. 다음으로 대화형 작품을 보겠다.

2659.
 (그대와의 관계에 관한 소문을) 아니라 하면 / 신도 싫어하겠지
 에이 마마요 / 소문나는 그대를 / 미워하지 않아요³⁶⁾
 (이연숙 역, 2009)

이런 방식의 ‘소문내기’는 <쌍화집>의 “새끼광대”를 비롯한 일련의 인물 형상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소문이야 날 테면 나라는 식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감정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이상으로써 2편의 사례만 간략하게 검토했지만, 속요와 견주어 읽었을 때 비교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다음으로 극한 상황의 경우를 보겠다.

3.2.2 극한 상황에서 화자의 내면

속요에서 극한 상황은 <정석가>에 뚜렷이 드러나 있으며, 논자에 따라

35) 籠もよ み籠持ち 廻申もよ み廻申持ち この岡に 菜摘ます子 家間かな 告らさね
 そらみつ 大和の国は おしなべて 我れこそ居れ しきなべて 我れこそ座せ 我れこそ
 そば 告らめ 家をも名をも.
 36) 争へば神も憎ますよしあやしそふる君か憎くあらなくに.

276 古詩歌研究 第27輯

<동동>의 일부 또는 <청산별곡>의 고뇌를 추가시키기도 한다.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이 닥치기 이전에는 변모가 없어야 한다는 신념을 보여주기 위한 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삭삭기 세물에 별해 나는 / 삭삭기 세물에 별해 나는 / 구은밤 닳되를 심고이다
 그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 그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有徳尊신 님를 여히으화지이다

<정석가>는 상황을 연쇄적으로 표현하며 시간의 흐름 또한 인식하고 있다. 님과의 이별을 거부하리라는 결심을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표현시킴으로써 수신자의 공감증을 증폭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만엽집』에서는 극한 상황이 명료한 과정법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86.
 이 정도로 줄곧 그리워만 한다면
 높은 산의 바위를 베개로 하여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³⁷⁾
 (박상현 역, 2005)

“높은 산의 바위를 베개로 하여”라는 부분은 <정석가>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간결하다. 그런데 사뭇 비장한 어조로 길게 노래한다고 해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270, 3271
 모조리 불태우고 싶다
 보잘 것 없고 남아빠진 작은 집에 버리고 떠나고 싶다
 찢어진 거적을 깔고 / 꺾어주고 싶다.

37) かくばかり恋ひつつあらずは高山の磐根しまきて死なましものを.

(그 여자의) 불결하고 추잡한 손과 / 손과 손을 마주잡고
같이 잠을 자고 있겠지 당신을 그리워하기에
운중일 / 밤새도록 / 이 침상이 뼈걱뼈걱하는 소리 날 때까지
(나는 피로워하리라!) 한탄한다.³⁸⁾

[返歌]

내 마음
(그것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것도 내 마음이기
아, 어찌할 도리가 없이
(추하고) 못마땅한 저런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기.³⁹⁾
(박상현 역, 2005)

이 작품은 반가[화답가]와 함께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리리라는 激情은 실감나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보다는 현재의 한 순간에 정념이 고정되어 있으며, 표현의 연쇄는 이루어져 있지만 반복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정석가>와 어느 정도 가까운 상황 설정은 다음 작품에 보인다.

743.

내 사랑은 (이룰 수 있다면), 천 사람이 이끄는 바위를 일곱 덩어리조차도
목에다 (걸라고 겁님이 말하면) 걸겠나이다 오로지 겁님의 분부대로⁴⁰⁾
(김사엽 역, 2004)

이 작품은 <정석가> 혹은 소악부 <오관산>, 사설시조 <불굴가>를 연상시키는, 이른바 ‘불가능 화소’를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다. 극한 상황 속의 격정적 정서는 향가에서 ‘죽음’과 관련하여 보이기도 한다. <모죽지랑

38) さし焼かむ 小屋の醜屋に かき棄てむ 破れ蓑を敷きて 打ち折らむ 醜の醜手を さし交へて 寝らむ君ゆゑ あかねさす 屋はしみにらに ぬばたまの 夜はすがらに この床の ひしと鳴るまで 嘆きつるかも。

39) 我が心焼くも我れなりはしきやし君に恋ふるも我が心から。

40) 我が恋は千引の石を七ばかり首に懸けむも神のまにまに。

가>의 결말 부분에서 무덤 곁에 머물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그러한 사례이다. 반면에 고려속요의 화자들은 ‘송축’과 ‘사랑’의 시점에서 이러한 격정을 발현시킨다는 점이 다르고, 죽음에 이르기보다 끝끝내 堪耐하겠다는 태도에서 확연하게 구별된다.

이렇듯 『만엽집』은 속요와 다른가 하면 비슷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 입체적인 비교와 대조에 유용하다. 『만엽집』에서 속요와 견주어 읽을 만한 요소를 더 찾아낼수록 속요 연구의 대상과 방법론 또한 풍성해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3.3. ‘이전가치’의 문제 - 관계의 재해석

속요는 궁중가요입에도 민요의 성격을 그대로 지닌 <상저가>, <사모곡> 등의 작품이 남아 있다. 이들의 민요적 성격을 ‘이전가치’라는 관점에서 풀이한 성과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들에 담긴 화락함과 효친의 정은 국태민안을 송도하고 상하동락의 기쁨을 확인하는 시적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상의 이전가치가 있기 때문에 위의 작품들은 소박한 민간가요이면서도 궁중악에 채용되고 또 존속해 온 것이다. (중략)

그런 점에서 이 작품들의 민요적 성격은 적어도 텍스트에 관한 한 ‘궁중악가로서의 개작에도 불구하고 잔존한 것’이 아니라, 그 ‘본래적 특성의 이전가치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존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⁴¹⁾

『만엽집』 가요 가운데 <防人歌>라는 계열이 있다. 이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부역을 떠나는 군인들이 아내와 부모, 자식 등 가족을 그리워하는 작품들이다. 경우에 따라 가족들의 화답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의 해석에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복종’과 ‘가족에 대한 정’이라는 두 가지 성향의 상충이 쟁점을 형성하기도 했다.⁴²⁾ 이러한 상황은 ‘이전가치’

41) 김홍규(1999). 103면.

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기도 하다. 바로 속요에서 긍정적 요소와 민간적 요소의 대립과 일견 유사한 구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자층이 종래의 연구와는 달리 균일하지 않았음에도, 그 주제는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정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⁴³⁾는 근래의 지적은 ‘가족에 대한 정’이야말로 <방인가>의 본질임을 다시 확인시켜준 셈이다. 말하자면 ‘가족에 대한 정’이야말로 작자의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감했던 요소라는 것이다. 다만 기층은 그 정감 자체에 집중했다면, 상층은 그 정감이 사회적 책임감 또는 왕에 대한 충성심이나 국가의식과 연결될 만한 요소를 찾기에 힘썼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이른바 ‘본래적 특성의 이전가치’에 대응할 만한 구도이다. 그것을 해당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4343.

나는 어차피 여행[왕의 명령에 따른 이동]은 여행이라고 체념이라도 하지만
집에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수척해 있을 아내가 가없어 못 견디겠다.⁴⁴⁾
(박상현 역, 2004)

4344.

병사로 떠나려고 하는 어수선함에 정신을 빼앗겨
아내에게 농사에 관해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왔던가.⁴⁵⁾
(박상현 역, 2004)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 작품의 화자에게는 ‘책임감’이 더해지고 있다. 4343에서는 아이를 양육할 책임을 아내에게만 맡겨놓은 것, 4344에서는 농사일에 조연을 해주지 않은 것, 모두 가정사를 아내에게만 떠넘기고 온 것에 대한 책임감 혹은 죄책감이라 할 만한

42) 그 정감의 양상은 박상현(2004), 82면 참조.

43) 임경화, 「만엽집 작자층론의 딜레마-동가·방인가 지방호족 창작설의 한계」, 『일본학보』 70 (한국일본학회, 2007), 261면.

44) 我ろ旅は旅と思ほど家にして手持ち瘦すらむ我が妻愛しも.

45) 忘らむて野行き山行き我れ来れど我が父母は忘れせのかも.

측면이다. 이것이 忠孝의 덕목까지는 못되어도 상당한 비중의 교훈적 가치, 다시 말해 이전가치를 지닐 수 있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방인가> 계열에는 남은 가족들을 화자로 한 일종의 화답 작품이 꽤 있는데, 대체로 떠난 사람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간혹 다음과 같이 떠난 이가 남겨진 이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3582.

아버님·어머님 목욕계계하며 내 안녕을 신에게 기원하면서 기다려줘요
쓰쿠시의 바다 밑바닥에 있다는 진주를 기념선물로 가지고 돌아오는 날까지.⁴⁶⁾
(박상현 역, 2004)

나라를 위해 떠나지만 집안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떠난 이가 집안 걱정 않고 편안히 지내도록 기도하는 모습들은 ‘가족에 대한 정감’이기도 하지만 계층에 관계없이 큰 호소력을 지닐 ‘이전가치’이기도 하다.

이상으로써 속요화의 3가지 접점을 통해 『만엽집』 수록 작품을 看取하였다. 아직은 전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 試論의 성격이 짙지만, 애정의 대상을 향한 어조의 차이, 극한 상황을 설정해가는 방식의 同異點, 이전가치가 만들어지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모색할 단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시학 이론과 텍스트에 대한 보다 풍성한 고찰, 그리고 무엇보다 속요에 대한 온당한 이해를 통해 여기서의 시도를 심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46) 大船を荒海に出だします君降むことなく早歸りませ", おほぶねを、あるみに
いだし、いますきみ、つつむことなく、はやかへりませ.

4. 앞으로의 과제

『만엽집』은 고대 한국과의 친연성이 큰 가요집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비교적 인접한 시기에 해당하는 향가와와 비교가 과제로서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작가의 혈통, 향가와 동질적은 국면의 제한된 비교,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일면 대조하는 방법론의 제약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에 본고에서는 향가에 비해 계통적 동질성의 단서가 있으며 그 서정성의 범위가 보편적인 것으로 평가받아온 속요를 통한 비교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만엽집』에 등항하는 애정, 극적·극한상황, 이진가지 등의 요소를 속요와 더불어 비교할 수 있었다. 이는 향가와와 비교연구에 비해 주제론이라는 문학 내적 자질에 치중하는 한편, 한·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 단선적 관점을 보다 입체적인 시각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보여주 고자 했다. 구체적인 작품 분석은 ①개체와 개체 사이의 이별, 그리움, 기다림의 정서, ②개체와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극적 상황 또는 극한 상황의 설정 방향, ③이진가치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의 재해석 등을 중심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試論의 의도는 백제문화의 유산을 한·일 양국에서 나름의 정황을 반영하여 각각 속요와 『만엽집』이라는 텍스트를 이루었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에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는 속요와 『만엽집』의 개별 작품을 인상적 차원에서 비교하였다. 그러나 엄정한 시학 이론의 준거에 따른 분석이 요청된다. 여기서는 개체와 개체 또는 그 주변을 이루는 관계망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법의 주제 설정은 자의적 인상비평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보다 유효적절한 구도 설정에 따른 비교가 절실하다 하겠다.

둘째, 속요와 『만엽집』의 비교 연구를 통해 『만엽집』의 가치를 다시 논 의할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논의가 속요 연구에 어떠한 단서를 제

공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자료가 풍부한 『만엽집』의 형성, 향유, 전승 과정은 속요의 그것을 연상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관련 史料를 본격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속요의 정체성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셋째, 지금은 잃어버린 백제문화의 영향력을 재구성할 수 있다. 백제문화의 실질은 이제 접근불가능한 영역이 되었지만, 백제지역의 전설, 석탑 등의 유물은 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 오랜 기간 존속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영향력과 전승의 한 가닥을 속요와 『만엽집』의 비교를 통해 짐작할 수만이라도 있다면, 그것대로 의의를 지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는 어조·정서·수사방식과 시간·공간 관념 등 다채로운 층위에서의 비교가 요청된다. 물론 『만엽집』의 총 작품수는 4,500여 수에 이르고, 다양한 양식과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짝막한 작품 몇 수의 인용만으로 고려속요의 기원이 『만엽집』에 남은 백제문화의 자취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엽집』이 신라 문화권의 시가 작품과는 잘 대응되지 않고, 오히려 백제시가 또는 고려속요에 가까운 서정성의 결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은 예사روی 보아넘길 것이 아니다.

참고문헌

『高麗史樂志』 三國俗樂條.

『萬葉集』

『樂章歌詞』

『樂學軌範』

- 구정호, 『만요슈-고대 일본을 읽는 백과사전』 (살림, 2005). 1~244면.
 김대행, 『한국시의 전통 연구』 (개문사, 1980). 150~151면.
 김명준, 「〈쌍화집〉 형성에 관여한 외래적 요소」, 『한국고전시가의 모색』 (보고사, 2009). 93~118면.
 김사엽, 『김사엽전집』 8~12 (박이정, 2004).
 김사엽, 『향가의 문학적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9). 1~380면.
 김창원, 「고려시대 ‘평양’이라는 공간의 탄생과 고려가요의 서정-〈서경 별곡〉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2009). 175~198면.
 김홍규, 「고려속요의 장르적 다원성」, 『육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102~103면.
 도수희, 「백제말의 시대별 특징」, 『백제의 언어와 문학』 (주류성, 2004). 56면.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백제양식석탑』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05). 220면.
 박상현, 『만엽집과 정치성』 (제이앤씨, 2004). 1~228면.
 박창기, 「만요슈의 도덕성 문제-시경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어일문학 연구』 72 (한국일어일문학회, 2010). 82면.
 서철원, 「백제 문화권의 <정음사>와 고려속요의 기원」, 『국어문학』 44 (국어문학회, 2008). 265~283면.
 신은경, 『풍류-동아시아 미학의 근원』 (보고사, 1999). 1~638면.

- 우에노 마코토, 박상현 역, 『천년의 연가 만엽집』 (제이앤씨, 2006). 1~228면.
 이수건, 「고려전기에 진출한 기타성관 출신의 고급관인」, 『한국중세사 회사연구』 (일조각, 1984). 219면.
 이연숙, 『일본고대 한인작가 연구』 (박이정, 2003). 1~328면.
 이연숙, 『한일고대문학비교연구』 (박이정, 2002). 1~326면.
 이연숙, 『향가와 『만엽집』 작품의 비교 연구』 (제이앤씨, 2009). 110면.
 이영태, 『고려속요와 기녀』 (경인문화사, 2004). 1~210면.
 임경화, 「만엽집 작자층론의 딜레마-동가·방인가 지방호족 창작설의 한계」, 『일본학보』 70 (한국일본학회, 2007). 261면.
 임경화, 「『만엽집』 ‘전설가’의 형성과 율령판표지식층」, 『민족문화사연구』 30 (민족문화사학회, 2006). 82~91면.
 임성철, 「시조와 만요슈의 자연관-자연소계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29 (일본문화연구학회, 2009). 291~319면.
 임성철, 『만요슈와 고시조의 花鳥風月』 (제이앤씨, 2005). 1~242면.
 전덕재,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2006). 1~479면.
 전덕재 외, 『한국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 (아카넷, 2000). 1~322면.
 최광준, 「한국에서의 『만엽집』 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 『일본학보』 62 (한국일본학회, 2005). 515~528면.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 연구』 (계명대 출판부, 2002). 90~93면.
 최정선, 「향가 기술 양상에 관한 비교연구-만엽화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민족문화연구』 32 (한민족문화학회, 2010). 129~154면.
 황명철, 『『만요슈』와 한인계 시가 연구』 (보고사, 2005). 1~417면.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Sokyo and Manyoshu in the Discussion of Themes

Seo, Cheol-w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rasp the origin of Sokyo as text of Paekjae Cultural Area for attaining a clue to the history of Paekjae Literature. It also arrang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ekjae Literature and Manyoshu(萬葉集).

Sokyo has some different factors which cannot originate in the cultural space of Hyangga. Especially the rhetoric and the lyric point. We try to find their origin from the 'Repetition' and the 'Refraction' of Paekjae Poetry, not from the 'Series' and the 'Bisymmetry' of Shilla Hyangga. Not only Jeongeupsa will be a clue to this, but many poems of Manyoshu in Japan can be good instances.

We can compare Sokyo and Manyoshu by the three themes : 1) the separation, longing, waiting emo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2) the subject and its surroundings make up a dramatic situation or set the direction of an extreme situation, 3) the previous interpretation of networks with a focus on value.

key words : Sokyo, Manyoshu, Paekjae cultural area, comparative literature, discussion of themes